

北漢山서도 適正한 入場料를 받아야한다

으레히 새벽이면 출발했다가 아침 일찍 내려오는 산행이어서 등산객이 들끓는 북한산의 난장판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경험하기는 지난 일요일이 처음이었다.

전날 뜻밖은 옛 친구들과 밤늦도록 어울린 술좌석 탓으로 아침을 먹는등 마는등 부라부라 등산복 차림을 갖추고 도봉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11시를 넘어 정오에 가까운 시각이었는데 버스에 내려서 보니 말로만 들던대로 곳곳에 난장판이 펼쳐져 마음이 어두웠다.

무질서하게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그리고 경적소리, 노점상들의 아우성, 인파들의 무질서한 내왕과 그에 따르는 소음, 곳곳에 널려있는 쓰레기들, 흡사 시장바닥을 방불케 한다고나 할까 난장판은 입구뿐만이 아니었다.

계곡을 중심으로 양쪽 숲까지 웬만한 곳은 모두 인파로 가득차 굽고, 지지고, 끓이는 냄새와 연기로 산야가 온통 뒤덮인 가운데 갖가지 아우성과 유행가의 소음이 한데 어울려 흡사 전쟁터와 같은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었다.

더 높이 오르면 괜찮으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는 애당초 오산이었다. 아수라장을 벗어났다 싶었더니 벌써 숲에 취해 병을 던지고 부녀자를 희롱하며 추태를 부리는 젊은이들을 보았고(우리 일행이 말리다가 아들뺨밖에 안되는 그들에게 봉변만 당했다) 짧은 하의만을 걸치고 맨몸으로 화투를 치는 중년과 괴성을 지르며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는 남녀 군상들이 있었다.

도대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면 문화 시민의 궁지는 어디로 가고 비천한 하류배들의 야만적인 무질서만 판을 친단 말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새로 만들고 갖가지 단장을 하여 올림픽을 준비한다지만 시민의 의식수준이 이정도인데 세계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크게 걱정된다.

이런 무질서와 난장판을 과연 없앨 수는 없는 것일

까?

언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겼다는 신문 보도를 본 기억이 난다. 휴일이면 쓰레기더미로 뒤덮이는 북한산이 그런데로 본 모습을 되찾는 것은 아마도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언제까지 쓰레기 더미나 치우는 기관으로 둘 것인가?

우리고 외국에서처럼 공단 관리직원들에게 무질서와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준사법경찰권(청원경찰 배치 등)을 주어 모든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기왕 내친김에 한마디 더 말해보자.

국내의 다른 국립공원은 모두 입장료를 받는가 본데 왜 북한산만은 받지 않는지 어딘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서울특별시민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닌가? 국립공원 북한산도 등산객에게 적절한 입장료를 받아야 필요한 최소의 편익시설과 등산로 파괴를 예방해야 한다.

형평의 원칙에서뿐 아니라 난장판을 막고 입장료를 받는 곳은 훨씬 깨끗하고 그런데로 공중도덕이 지켜진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직원들에게 준사법경찰권을 주고 북한산에도 입장료를 받게한다면 지금처럼 쓰레기더미와 유원지처럼 난장판이 되는 일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진정 산을 사랑한다면 자기 쓰레기는 자기 스스로 되갚고 돌아가고 최소한 車道부근에 설치된 쓰레기 집하장까지라도 갖다주어야 산에 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입장료가 아까워 산에 갈 수 없다는 사람은 서울근교의 관악산이나 다른 산에 가면 될 것이고 이대로 유서깊은 北漢山을 무료개방해두면 멀지 않아 北漢山에는 숲도 사라지고 古城址마저 흔적도 없어질 것임을 경고해 두고 싶다.

[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 申皓澈]